

전국 31개 어촌지역에 총 1조 1,800억 원 투입, 어촌 소멸 막는다

- 어촌 경제생활거점 조성, 안전시설 개선 등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 선정
- 총 2,800억 원 재정 및 9,000억 원 민간자본 투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9일(화)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하여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상지 65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유형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업기반이 잘 갖추어진 어촌에 재정지원 사업을 마중물로 민간투자 사업을 활성화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유형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생활 서비스기반 구축을 통한 귀어인 유치를 활성화로 유입인구 정착,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 편의시설 확보
-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소규모 어항 및 배후 어촌마을의 재해 예방을 위한 어항시설 확충 등 생활 안전시설 개선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총 151개소의 후보지를 신청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 및 최종선정위원회를 거쳐 사업지 31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전라남도 진도군 서망항, 경상남도 거제시 죽림항 등 3개소가 선정되었다. 3개소에는 4년간 총 900억 원의 재정과 약 9,000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산업 복합단지와 관광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수산·관광 거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양양군 수산항의 경우, ‘수산항 복합단지’ 조성을 핵심으로 추진한다. 이 시설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레저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창작 공간 제공 및 관련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은 수산항 인근 도화지구에 지역 주민 우선 채용, 수산항

생산 수산물 활용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종합 리조트를 개발하고, 양양과 울릉도를 잇는 여객선을 신규 취항하는 등에 총 5,956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8,5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30년간 연평균 약 13만 명 이상의 신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형②]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

강원도 고성군 오호항, 전라남도 함평군 주포생활권,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권역 등 10개소가 선정되었으며, 4년간 총 1,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문화·복지 등 어촌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충남 서산시 팔봉권역은 어촌앵커*가 지역에 상주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귀어정착 지원 공간인 ‘가로림365 쉼표하우스’를 건립하여 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임대주택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야영장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어항시설도 정비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지역에 상주하며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관계인구 유입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기획, 생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민간주체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

경상북도 영덕군 금진항, 전라남도 여수시 임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동항 등 18개소가 선정되어, 3년간 900억 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특히 경상북도 영덕군 금진항은 높은 파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월파 방지 시설을 보강하고, 안전 난간도 설치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신안군 앤두·막금항, 진도군 눌옥도항 등에서는 낙후된 선착장을 보강하여 섬 주민의 여객선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주민 주도 소득사업이 포함된 경우, 사업 추진 이전부터 소득사업의 적합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년 차를 맞이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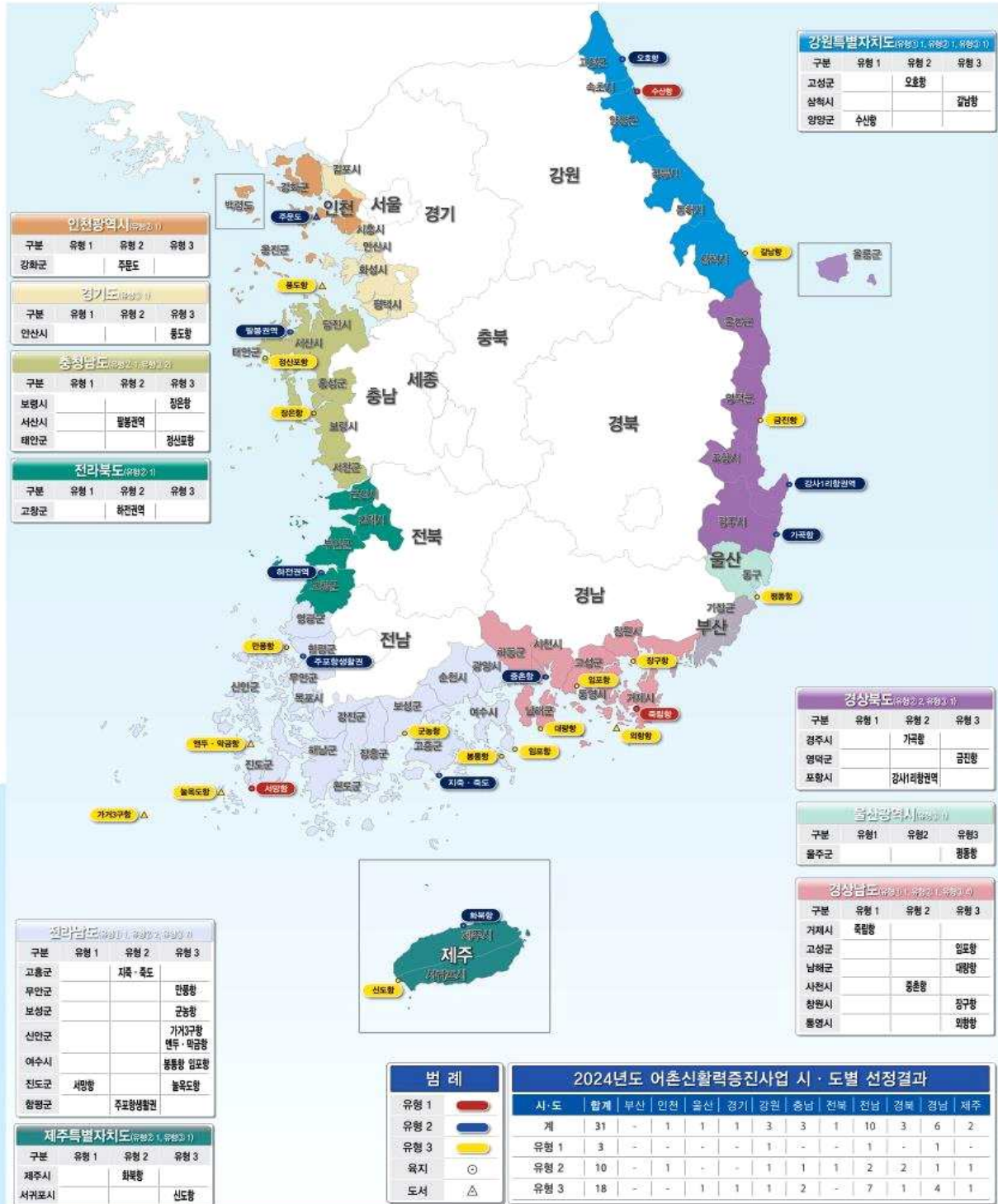
담당 부서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	책임자	과 장	엄익환 (044-200-6170)
		담당자	사무관	조승래 (044-200-6174)

참고 1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선정 현황(31개소)

유형	시·도	시·군·구	대상지	유형	시·도	시·군·구	대상지	
유형1 (3개소)	강원	양양군	수산항	유형3 (18개소)	울산	울주군	평동항	
	전남	진도군	서망항		경기	안산시	풍도항	
	경남	거제시	죽림항		강원	삼척시	갈남항	
유형2 (10개소)	인천	강화군	주문도		충남	보령시	장은항	
		고성군	오호항			태안군	정산포항	
	충남	서산	팔봉권역		전남	무안군	만풍항	
	전북	고창군	하전권역			보성군	군농항	
		전남	고흥군			지죽·죽도	신안군	가거3구항
			함평군			주포항생활권		앤두·막금항
	경북	경주시	가곡항			여수시	봉통항	
		포항시	강사1리항권역				임포항	
	경남	사천시	중촌항		진도군	눌옥도항		
	제주	제주시	화북항		경북	영덕군	금진항	
유형3 (18개소)	경남	고성군	임포항					
		남해군	대량항					
		창원시	장구항					
		통영시	외항항					
제주	서귀포시	신도항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지 위치도



참고 3

유형별 대표 사업 소개

[유형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 어업기반이 잘 갖추어진 어촌에 재정지원 사업을 마중물로 민간 투자 사업을 활성화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대표 사례: 강원 양양군 수산항

(현황) 강원 양양군 수산항은 동해안의 대표 미항으로 수산어촌체험마을, 수산항 요트마리나(110척) 시설이 자리하고 있으며, 요트, 카누 등 선박형 해양레저 관광단지로 어촌소득과 관광수요 확대

- ▶ 수도권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인프라(양양고속도로, 양양국제공항)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호텔, 리조트 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이 높음

(민간투자사업 : 총 5,956억원)

- ▶ 설악산과 동해의 자연풍광을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종합휴양리조트 조성사업에 5,827억원,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를 대비하여 양양(수산항)과 울릉(현포항) 항로 정기여객선 운항사업에 130억원을 투자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도모

(재정사업)

- ▶ '수산항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수산어촌체험마을 체험객을 위한 숙박공간,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디자인창작센터, 마을주민들의 관광 콘텐츠 개발, 동아리 활동 지원 등으로 활용

(기대효과)

-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① 신규 일자리 창출 8,500명, ② 관광객 13만명 유치 등의 사업성과 전망

수산항 경제플랫폼 구상도



[유형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 생활 서비스기반 구축을 통한 귀어인 유치를 활성화하여 유입
인구정착, 생활 SOC 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 편의시설 확보

◆ **대표 사례: 충남 서산시 팔봉 생활권**

(현황) 충남 서산시 팔봉 생활권은 **기초생활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태로 생활서비스 기반 시설구축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며,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증가로 귀어인 지원시설 확충이 필요**

(공동체 행복서비스 지원)

- ▶ 어촌생활거점 **‘행복스테이션’**을 조성하여 **어르신·어린이 돌봄센터**, 어촌 창업지원 및 6차 산업화 지원을 위한 **어촌창업센터**, 주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공간으로 운영

(귀어·귀촌, 시존어부 육성)

- ▶ 귀어 정착지원 공간인 **‘쉽표하우스’**를 기반으로 귀어인, 예비귀어인, 시존 어부를 위한 **거주공간 확보**, 가로림 수산학교 귀어교육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임시주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활성화 기반 구축)

- ▶ 가로림 활력공간에 캠핑사이트, 놀이터, 다목적 구장 등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팔봉 생활권에 **관광 거점**을 마련하고, 기존 주먹배 전망대와 연계를 통한 **관광시너지 효과** 기대

(현황) 충남 서산시 팔봉 생활권은 기초생활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태로 생활서비스 기반 시설구축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며,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증가로 귀어인 지원시설 확충이 필요

(공동체 행복서비스 지원)

- ▶ **어촌생활거점 ‘행복스테이션’**을 조성하여 **어르신·어린이 돌봄센터**, 어촌 창업지원 및 6차 산업화 지원을 위한 **어촌창업센터**, 주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공간으로 운영

(귀어·귀촌, 시즌어부 육성)

- ▶ 귀어 정착지원 공간인 '실표하우스'를 기반으로 귀어인, 예비귀어인, 시즌 어부를 위한 거주공간 확보, 가로림 수산학교 귀어교육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임시주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활성화 기반 구축)

- ▶ 가로림 활력공간에 캠핑사이트, 놀이터, 다목적 구장 등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팔봉 생활권에 관광 거점을 마련하고, 기존 주먹배 전망대와 연계를 통한 **관광시너지 효과** 기대

팔봉 생활권 사업 구상도



[유형3] 어촌 안전인프라 조성

- 소규모 어항 및 배후 어촌마을의 재해 예방을 위한 어항시설 확충 등 생활 안전시설 개선
- 해상교통 취약지역의 안전한 여객선 입출항과 이용객 편의를 위한 접안시설 확충 및 여객 편의시설 정비

<< 대표 사례 >>

◆ 대표 사례: 경북 영덕군 금진항

(현황) 금진항은 태풍으로 인해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주택 침수, 도로 유실 등 피해 발생, 어항시설, 마을안전시설 정비·조성을 통해 어항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필요

(주요 사업) 물양장 조성 및 CCTV 가로등 설치 등 어업 환경개선 및 안전 확보

- ① 물양장 조성, 방파제 연장 등 어업 작업 환경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어항 기능 회복
- 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노후 된 가로등 정비를 통한 주민들의 생활안전 확보 및 정주 여건 개선

금진항 사업 구상도

